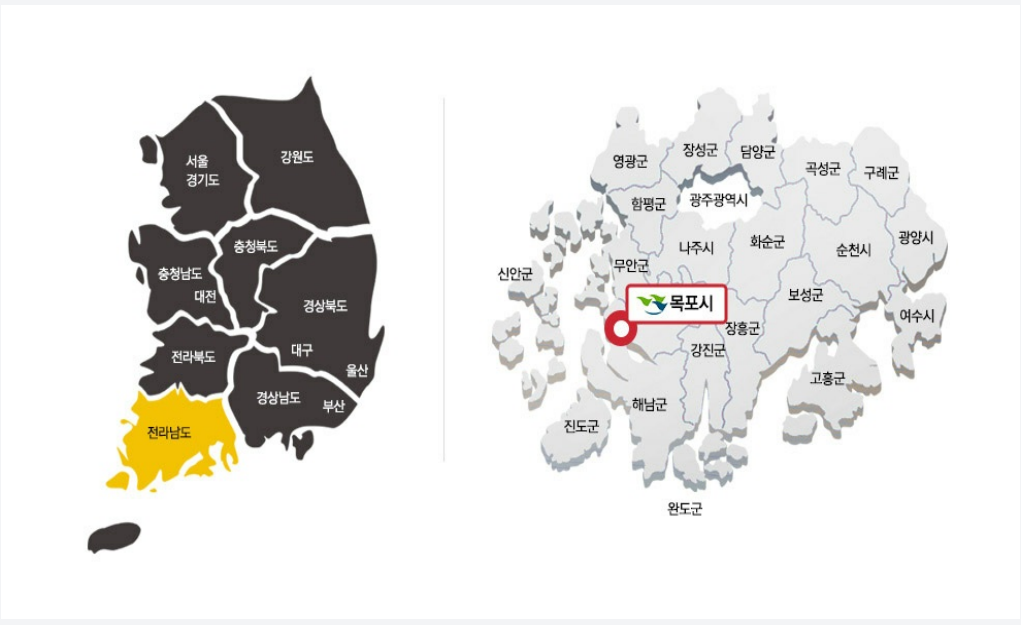
2024년 05월 09일 13시 11분

위치/자연환경



전라남도 남서단 영산강 하구에 위치하여 동쪽과 남쪽은 영산호 (□□□)에 면해 영암군을 마주하고 있으며, 서쪽은 많은 도서들로 이루어진 신안군, 북쪽은 무안군과 접하고 있다.

동경 126°17′~126°26′, 북위 34°44′~34°49′에 위치하며, 면적 51.58㎢, 인구 241,213명이다. 무안반도 남단에 위치한 목포시는 동쪽에 입암산(□□□, 121m), 서쪽에 유달산(□□□, 228m), 북쪽에 양을산(□□□, 156m)·대박산(□□□, 156m)·지적봉(□□□, 189m) 등으로 둘러 있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다. 또한, 그 주위에 13개의 도서가 넓게 펼쳐져 있어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방파제 구실을 하여 천연적인 양항의 조건을 보인다.

시가지의 서남쪽에 병풍을 둘러놓은 듯 기암절벽이 펼쳐진 유달산은 고려시대인 1351년(충정왕 3)에 봉수대가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. 임진왜란 때 군량미가 쌓여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일명 노적봉 (□□□)이 있으며, 영산강· 삼학도 (□□□)와 함께 이곳 사람들의 시정(□□)을 돋우는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다. 시가지 주변의 영산강 하구에는 연변·북항·대반동·백련동·갓바위해안 등의 간석지가 있다. 이들 간석지는 육상으로부터의 계속적인 퇴적과 바닷물의 유입횟수가 줄면서 정착하게 된 염생식물 덕분에 퇴적물의 집적과 간척이 용이해져 농경지·주택지·공장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. 이 밖에도 고하도 (□□□)· 놀도 (□□)· 달리도 (□□□) 등 6개의 유인도와 5개의 무인도를 포함하고 있다.

영산강 유역은 강수의 편의율(□□□ : 치우치는 정도)이 대단히 커서 매년 상습적인 한해(□□)·홍수 등의 피해가 빈번했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영암군 삼호반도(□□□□)와의 사이에 하구둑이 축조되어 영산강은 영산호로 변하였다.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